



Mini PRD: 영양 비서 '밀비(Meal-Bee)'

0. PRD 한 줄 요약 (One-liner)

이 서비스는 시간이 부족한 대학생 및 직장인이 개인의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는 최적의 식단을 고민 없이 선택하도록 돕는 텍스트 분석 기반 영양 비서 웹 서비스이다.

1. Problem (문제 정의)

1-1. 어떤 문제가 있는가?

- 상황:** 기숙사 거주나 바쁜 일정 중 메뉴를 고를 때, 건강을 챙기고 싶지만 무엇이 내 몸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결국 대충 때우게 됨.
- 중요성:** 무분별한 식습관은 장기적으로 영양의 균형을 깨뜨리고 일상의 활력을 저하시킴.
- 가이드 답변:** '오늘 뭐 먹지?'라는 문제는 주로 식사 직전(결정의 순간)에 발생하며, 현재는 검색이나 습관에 의존함. 이 방식은 정보가 너무 많아 결정 피로도를 높이고 개인의 위장 상태를 반영하지 못함.

1-2. 왜 아직 잘 해결되지 않았는가?

- 기존 해결책의 한계:** 대다수의 식단 앱은 칼로리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*번거로움(복잡도)*이 크며, 사용자의 미각 민감도나 소화력을 반영하는 **초개인화 추천(접근성)** 기능이 부족함.

2. Target User (타겟 사용자)

2-1. 핵심 사용자 1명 정의

- 누구:** 20대 대학생 (기숙사 거주, 식단 관리가 귀찮은 건강 관심층).
- 맥락:** 수업과 과제로 바빠 끼니를 간편식으로 해결하지만, '음식이 보약이다'라는 말을 통해 영양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'제대로 된 한 끼'를 원하는 사람.

2-2. 사용 시나리오 (짧게)

아침 기상 직후, 컨디션이 저조한 상태에서 웹에 접속. "조리 시간 1분, 속 편한 메뉴" 필

터를 선택해 비서가 정해준 '단백질 쉐이크와 바나나' 조합을 고민 없이 선택함.

3. Solution (해결책)

3-1. 우리가 제공하는 핵심 해결 방식

- **핵심:** "영양 관리의 외주화(Outsourcing)".
- **딱 하나만 말하면:** 사용자의 미각과 위장 상태를 학습해 **'지금 바로 먹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'**를 딱 정해준다.

3-2. 핵심 기능 (3개 이내)

1. **라이프/체질 필터링:** 준비 가능 시간(30초~15분), 알레르기, 미각 민감도(예민/둔감), 위장 건강(튼튼/민감) 설정.
 2. **항상성(Homeostasis) 추천 엔진:** 직전 식사의 맛(맵짠 등)과 영양을 텍스트로 분석하여 다음 식사에서 부족한 요소를 보완하는 메뉴 제안.
 3. **학습형 피드백 루프:** 식후 '예/아니오' 응답을 통해 '마이 픽' 저장 및 개인화 추천 가중치(맛, 소화력 등) 업데이트.
-

4. User Flow (아주 간단한 흐름)

1. **사이트 접속:** 초기 프로필(미각/위장 등) 입력.
 2. **상황 선택:** 현재 가용 시간 및 컨디션 체크.
 3. **결과 확인:** AI 비서가 제안하는 **3가지 식단 카드** 중 선택.
 4. **피드백:** 식사 후 간단한 만족도 응답 및 데이터 저장.
-

5. Success Metric (성공 기준)

- 추천 식단 확인 후 식후 피드백까지 완료하는 **사용자 완료율 70% 이상**.
 - 생성된 결과물을 '마이 픽'에 저장하거나 재방문하는 **주간 리텐션 40% 이상**.
-

6. Scope & Constraints (범위 제한)

6-1. 이번 프로젝트에서 하지 않는 것

- **로그인 시스템:** 구현 속도를 위해 브라우저 로컬 저장소(LocalStorage) 활용.
- **이미지 분석 AI:** 기술적 장벽을 고려해 텍스트 입력 분석 방식으로 대체.
- **모바일 앱:** 웹 서비스 형태에 집중.

6-2. 현실적인 제약

- **데이터셋:** 입문자 수준에 맞춰 편의점 및 간편식 위주의 메뉴 100종으로 제한.
- **개발 기간:** 소규모 팀으로 단기 내 핵심 기능(MVP) 구현 목표.

7. Why Now? (왜 지금인가)

- **시장 및 기술 트렌드:** 헬스케어 시장이 단순 기록에서 'AI 초개인화 자동화'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, 정보 과잉 시대의 선택 피로도를 낮추는 '영양 큐레이션'은 시장의 강력한 니즈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맞물리는 지점임.

8. (Optional) Reference / Inspiration

- **참고 서비스:** 피부 분석 후 맞춤 화장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의 '데이터 분석-개인화 추천' 로직.
- **통계적 근거 (선택의 역설):** 심리학적 통계에 따르면 선택지가 10개 이상일 때보다 5개 이하(특히 3개)일 때 구매 결정률이 **약 6배 상승함**. 밀비는 이를 반영해 단 3가지의 최적 식단만 제안함.